

당신 손을 나에게 얹어 주소서

김진근(영화배우 고 김진규님의 아들)

수 녀님의 말씀에 힘입어 호스피스에 대한 저의 느낌을 몇 자 적습니다. 아버님께서 혈소판감소증이란 병으로 지난 약 5년간 매주 혈소판 수혈을 받아 오시다 그 병이 골수암으로 전이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입, 퇴원을 거듭하시며 투병해 오셨습니다. 암은 결국 말기 상태에 이르렀고, 저희 가족들은 이경식 박사님과 의논 끝에, 아버님을 이곳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시도록 결정했습니다.

약 5개월 전, 악화되었던 아버님의 병환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적같이 호전되면서, 약간은 안심된 마음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New York으로 되돌아갔다가, 호스피스 입원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었으나, 아버님을 모시고 직접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바가 새삼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이곳 병동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에서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중요시되는 반면, 호스피스는 환자의 인격을 중요시하고 그의 가족을 위로하며 인위적인 행위와 생명연장보다는 통증해소와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죽음 앞의 두려움과 어두운 시간들을 오히려 남은 시간을 충만하고 의미있게 살도록 하느나에 관심이 집중된 '사랑 운동'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것이 한없는 소망이겠으나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진 깊어진 아버님의 병세와 계속되는 고통을 보면서 수많은 갈등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길인가? 아버님께서 어느 쪽을 바라고 계실까? 치료를 중단함은 곧 다가오는 죽음을 뜻하는데..., 그렇다고 호전되지도 않는 치료를 계속 받으시며 저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과 사를 감히 생각한다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감에 따라 저의 아버님도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님들을 통하여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죽음과 대면하기를 거절합니다.

죽음은 삶과는 정반대이며 또한 인간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기에, 죽음을 부정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주시하며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이 분명히 겪어야 되는 ‘죽음’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임종을 앞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나 양로원 등의 기관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마음이 어떠할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자기상실감, 분노와 우울,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수용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고통의 연속이겠습니까? 가족마저 외면하고픈 이 고통의 나날들은 조금이나마 기쁘고 그리고 의미있게 보내드리기 위해 봉사하시는 간호사님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그 분들의 환한 미소와 정성어린 손길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분들의 변함없는 헌신적인 봉사는 저를 숙연케 하였습니다. 외로이 꺼져가는 한 생명의 불꽃을 향해 그 분들은 오직 사랑 하나로 대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 유명한 나이팅게일도 이터하셨겠구나 하고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하신 그 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실 저의 아버님께도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천상에서 아버님을 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이 호스피스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조금은 편안히 저의 아버님을 떠나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걸레질하고 쓰레기 비우시러 오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아름다운 수녀님께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조그마한 글을 바칩니다.

“주여, 당신 손을 나에게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바로 당신의 손이 손수 그들을
만지는 것이 되리이다.”

(유다인의 TORA의 기도문 중에서)

이것이 바로 간호사님의 손길이 아닌가요 합니다.

